

올해 미국이민 100·미주전법 40주년

2003년 이민 100주년 및 미주전법 40년을 맞아 미국내 한인사찰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LA 관음사는 2월부터 8월까지 '미주전법 40년사' 편찬, 아예주 초청공연, 미주포교 40주년 불교학술심포지엄, 불교미술전시회, 대강연회, 찬불기도 음악회 등 8개 행사를 준비 중이며, 하와이 무량사는 5월 이민 100주년 기념세미나,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한인문화원 개원식, 마우이 선원개원식 등을 준비 중이다. 또 미주현대불교는 맨해튼에 '한미 불교문화센터' 건립하며, LA 포교사단도 이민봉사팀과 개척포교에 적극 나선다.

10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의 첫 기착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간직한 하와이의 무량사(주지 도현)는 하와이 이민100주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5~17일 이민 100주년 기념세미나, 문화행사, 세계평화기원대법회, 한국문화원 개원식, 한인들이 일하던 사



◇내년 5월 개원하는 지하1층 지상5층에 건평 3천5백평 규모의 하와이 무량사내 한인문화원. 한국의 민족문화와 불교문화를 홍보하여 동서문화의 가교역할을 하게된다.

1902년 12월, 증기선 갤럭시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한인 102명은 이듬해 1월 13일 3주간의 긴 여정 끝에 하와이에 도착, 사탕수수밭 등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미국 이민의 씨앗을 뿌렸다. 한인들은 쪽빛바다와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 한 채 드넓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음악에서 실마, 오직 가난한 조국의 암울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처럼 일했다. 한국인의 끈기는 타향에서도 꽃처럼 피었다. 한인들은 뼈가 부스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만은 잘 키

워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의 세월을 이겨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던 1960년대, 부처님의 법음에 목말랐던 한인들은 업무차, 여행차 방문한 본국의 스님들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한국불교를 뿌리내렸다. 2세기를 맞은 미국 내 한국불교는 이제 교포위주에서 현지의 위주로 포교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찰들은 한인 이민 100주년, 미주포교 40년을 맞아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한국불교 알리기 행사를 마련 중이다.

평화기원법회 세미나 등 행사 다채

탕수수농장이 있던 마우이 섬에 선원개원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한국의 민족문화와 불교문화를 홍보하여 동서문화가 넘나드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한인문화원은 지하 1층 지

상 5층에 건평 3천5백평 규모이다. 전통양식의 한인문화원에는 대강당, 평화문제연구소, 국제선원, 한인학교, 민족문화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하와이 불교TV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무량사는 9월 신학기에 4년제 정규대학인 하와이시다르타대학

년을 맞아 12월초 '이민 1백주년 및 관음사 창립 30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기념행사 준비위는 내년 2~8월 미주전법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미주전법 40년사'를 편찬한다. 40년사에는 도안스님, 삼우스님, 김형근 미주현대불

학술심포지엄, 4월 재미 미술가 불교작품 전시회, 8월 이민1백년 전통한국 미술품 전시회, 관음사 30년사 기념책자 발간 및 소장품 전시회 등이 다양하게 준비된다.

뉴욕 소재 미주현대불교사(사장 김형근)를 비롯, 한국과 미국 동포사회의 불교계 인사들은 맨해튼에 '한미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한다.

한국 불교문화를 미국 주류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전초기지가 될 '한미 불교문화원'은 400여평 규모이며 갤러리과 공연장, 스튜디오, 법당 등이 들어선다.

한편 LA 포교사단(단장 김안수)은 미국포교 40주년을 맞아 개척포교를 시작한다. 포교사단은 이민번호사 자문봉사팀을 두고, 이민자 포교에 나선다. 이민봉사팀은 미국내 90여개 조계종 사찰과 연계해 교포불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청소년, 이민, 의료, 장의 문제 등 불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LA관음사 심포지엄·불교미술전등 8개 행사

하와이무량사 싯타르타대개교·한인문화원 개원

미주현대불교 맨해튼에 한미불교문화센터 건립

을 개교한다. 무량사가 학교법인 설립하여 2001년 9월 주정부 허가를 받고, 지난해 초 미국서부사학연합회 실사를 거쳐 9월 신학기 개교하는 4년제 정규대학, 2년제 대학원이다.

미 전역의 한인사찰로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LA 관음사(주지 도안)도 이민 1백주년, 관음사 창립 30

교사장들이 '교포포교의 현실과 과제' '현지인 포교 성공사례' '영문문서포교의 현황과 과제' '국제포교의 문제점과 방안'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또 3월 9일 30년 기념 대법회 및 30년 모범불자, 20년 근속 불자 시상식, 16일 기념 대강연회와 찬불기도 음악회, 23일 본국 종단대표와 미국불교화자 초청



한인이민 100주년기념 조형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2일 하와이 파이아공원(Paia Park)에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

미국내 한국불교 현황

5개종단 사찰 110곳 스님·법사 200여명

현재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보문종 법화종 등의 한국사찰은 총 110곳에 달한다. 한인 스님과 법사들은 200여명.

25개국에 분포하는 한국불교의 해외 사찰 190여곳, 3백여 스님들의 수를 감안하면 미국불교는 해외포교의 60%를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1960년대 한국최초의 절은 미국 콜롬비아대 교환교수로 방미한 서경보스님이 필라델피아에 창건한 능인선원. 이후 송산스님이 72년 보스턴 브라운대 주변에 아파트를 한 채 얻어 흥법원 개원한 것을 시발로 74년 케임브리지 선원, 75년에 뉴헤이븐 선원, 뉴욕선원을 세웠다. 76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첫 한국사찰인 선원 달마사를

동국로얄대 개교·태평선원 개원

교포위주 탈피 현지인 포교과제

세웠다. 정달스님도 72년 뉴욕에 삼보사를 창건하여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1974년 LA관음사(도안)가 개원하며 교포포교의 새 장을 열었고, 대원스님이 76년 하와이에 대원사(현 무량사)를 창건했다. 87년 6월에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모건힐에 지원을 개원한데 이어 89년 뉴욕지원, 90년 뉴욕주 메사페쿠아시지원, 91년 LA지원, 시카고지원을 열었다.

1989년 미주현대불교사가 설립돼 월간 <미주현대불교>와 계간 영문잡지 <목탁>을 발간했으며, 96년에는 동국대가 미국 LA에 동국로얄대를 개교했다.

98년 12월에는 하와이 무량사가 동안거를 맞아 미국 최초의 한국스님 선방인 태평선원을 개원했다.

앞으로 미주불교의 과제는 현지인포교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현지인 포교를 위해 외국어 번역 한국불교 서적을 늘리고, 인력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스님은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과제"라며 "동서번역체계를 갖춘 교리 공부와 법회, 참선수행 프로그램으로 현지인 포교에 나서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미주전법 '큰 수레' 이끈 스님들

미주포교 40년사에서 '전법의 큰 수레'를 이끈 스님중 대표적인 분들이 송산스님(화계사 조실)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 도안스님(관음사 주지)이다.

송산스님은 교포위주 포교에 머무르고 있는 여타 사찰들과는 달리 직접 현지인들에게 한국선불교를 알렸다. 예세이집 <만행>으로 유명해 진 현각스님을 비롯해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국사찰을 짓고있는 무량스님 등 60여명을 출가시켰다.

1972년 도미한 송산스님은 세락소에서 노동을 하며 포교당을 개척했다. 스님은 현지인 포교에 중점을 뒀던 예일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법회에 주력했다. 스님의 한

국선불교 전파노력은 1976년부터 급속도로 확장됐다. 현재 무각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인 스티븐 미첼이 쓴 <부처님께 재를 털면>이라는 책이 베

송산스님 현각·대봉등 현지인 60여명 출가시켜

대행스님 4곳에 한마음선원...2·3세 포교주력

도안스님 불교전문 라디오·TV운영, 교양대 설립

스트렐러가 되면서, 이 책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어 현재 5만에 이르는 벽안의 제자들을 두고있다. 또 대행스님은 백악관, 뉴욕 등에서

대법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였으며, 미국현지에서 4개의 지원을 두고, 현지인 포교 및 어린이 청소년법회 개최 등 2, 3세 교포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도안스님은 1974년 3월 개원한 LA 나성관음사 주지로 추대돼 미국에 처

음으로 불교방송과 불교TV설립, 불교 교양대학 Korea Center School(성인영양학교) 개교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



◇송산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98년 뉴욕선센터에서 외국인 제자들에게 설법하고 있다.



◇97년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 주지로 노스쇼어 센터에서 열린 대행스님초청법회에는 현지인 1천여명이 참석,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